

# 탑비는 홀로 마당 지키고 부도밭엔 모조품이 주인 노릇

## 19 비로사, 빛의도량 빛의역사

모든 대중들에게 당부하노니 나는 지금 이미 해가 서산에 드리운 것과 같이 죽음직전에 있으므로 살아 있을 날이 수일지내(數日之內)에 있다. 이른 서리가 봄 꽃을 침위(侵萎)시키는 것을 아쉬워하지도 않거늘 어찌 가을의 황엽이 청계에 떨어지는 것을 근심하라. 이는 본분납승의 사체(事體)이다. <중략>

소소한 일로 권속간의 인정에 얽혀 동분서주해 부질없이 세월을 보내지 말고, 각기 스스로 잘 호지해 취의(叢叢)와 절발(綴鉢)로 가는 곳마다 수행에만 전념하라. 종상기래(從上)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풍(門風)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남북지중에서 이 소백산에 주석한 7~8년 동안 지방의 남자가 본광을 찾고 본색을 탐구하면서 어언 여러 해를 지나게 됐다. 분(分)을 따라 정진해 때를 쫓고 세상을 수순하되 특별한 궤칙은 두지 말고, 평범한 진리를 따르도록 하라. 또 방랑하거나 안일하지 말 것이며, 동량이 되려는 원력 또한 잊지 마라. 옳지 않은 일은 불구덩이를 피하듯 처음부터 행하지 말라. 작은 일이라도 큰일이든 간에 항상 조심해 여법하게 수행토록 하라. 내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려 하니, 세상(世相)의 뜻으로써 속되게 애통해 하거나 허둥지둥 하지 마라. 금생이 이미 다하였으니, 내내(來來) 세세(世世)에는 다 같이 부처님 법석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장마전선은 소멸했어도 태풍이 몰고 오는 바람과 비 소식에는 모종의 두려움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연일 짙푸더워입니다. 먼 바다에서는 바람이 불고 내륙에서는 불볕더워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야말로 자연입니다. 산은 높아서 좋고 계곡은 깊어서 좋고 들은 넓어서 좋은 것입니다.

책을 뒤지다가 신라말 고려초를 흥미했던 '진공 대사보법탑비(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호)'의 비문에 눈이 꽂힙니다. 본문이 아니라 비석의 뒷면에 따로 새겨진 글에서 소백산 깊은 계곡의 서늘한 바람을 느낍니다. 대개의 비들은 뒷면에 문도 등의 명단이 들어가는데 진공 대사(眞空, 855~937)의 보법탑비(普法塔碑)의 뒷면에는 '소백산대사(小白山大師) 입천화지시(臨遷化之時) 유계(遺讞)'란 제목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공 대사가 입적 직전에 후학들을 위해 남긴 유언을 쟁겨 넣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승이 후학을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마침, 하안거 해제일이 지나고 운수들이 만행을 떠난 시간입니다. 진공 대사의 유언을 읽으며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마음 뒤는 사람이 견지해야 할 덕목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수행에만 전념하라' '평범한 진리를 따르도록 하라' '옳지 않은 일



조각을 이어 맞춘 진공대사보법탑비와 적광전 앞의 석탑. 비로사 지표조사에서 발굴해 낸 석재들.



## 의상 창건 대찰의 면모 전란 때마다 화마로 훼손 보법탑비 뒷면 '진공 대사 유계' 오늘날 불자들에게 간절한 가르침 "옳지 않은 일은 불구덩이 피하듯 행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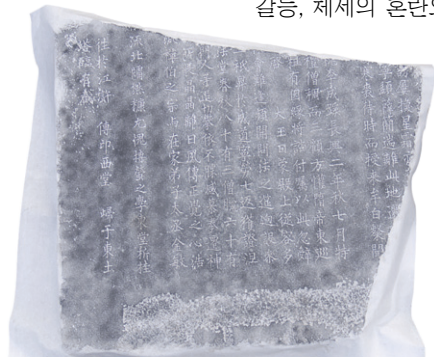
은 불구덩이를 피하듯 처음부터 행하지 말라'는 대목은 빼어 새겨야 할 금언들로 다가옵니다.

지금, 불교계는 다양한 변화의 고갯길을 넘고 있습니다. 최근 반세기 동안 한국의 불교계는 현대사회의 문화와 정신을 견인하는 종교적 역할을 갖추는데 동력이 끊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검토할 여지도 없이 세상의 변화를 관망하는 입장에서 버텨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속출하는 내부 분열은 종파의 분화와 갈등, 체제의 혼란으

로 이어지며 과거와 현재의 시간 어디에도 발을 딛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서도 마땅한 공간 확보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외래 종교와 신흥종교의 성장을 밀리게 지켜본 것은 두 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한국불교는 지금 진정으로 마음을 낮추고 지난 반세기의 자화상을 들여다 볼 때입니다. 그리고 참회할 것과 선양할 것, 풀어야 할 갈등과 화해해야 할 반목, 되찾아야 할 자존감과 자생력 등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공 대사의 유계는 오늘날 한국불교 상황을 1100여 년 전에 예견한 듯 숙연하고 서늘합니다.

비로사 가는 길,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숲은 여름답게 푸르고 못 또한 잠마 끝의 풍경으로 잘랑거립니다. 밭의 곡식들은 얼굴을 붉히며 익어가고 매미 울음은 요란합니다. 아영 하는 피서객들은 얼굴이 밝고 개울물은 한 잔도 머물지 않고 우당탕탕 길을 재촉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동양대 박물관이 발견한 '보법탑비' 조각

의상 대사가 창건한 대찰의 품모는 온데간데없고, 전란 때마다 화마에 스러져 긴 시간 폐허로 있드려 있던 비로사는 진공 대사의 간절한 마음을 새긴 비석 하나가 우뚝 서 있음으로 그 사라지지 않는 빛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제 일을 하듯 비로사도 소백산의 푸른 발목쯤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보듬고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로사를 보면, 지난 한 세기 혹은 지난 500년(조선시대)의 불교를 볼 수 있습니다. 진공 대사의 유계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간절한 말씀으로 거기 새겨져 있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말쑥하게 단장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직 송진 내음이 생생하게 묻어나는 요사와 종루를 만날 수 있고 그 왼쪽 모퉁이에 꼭 끼진 듯 한 자리에 '보법탑비'가 서 있습니다. 한 때 고추밭이었던 절 마당에는 새로운 흙이 깔리고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는 동안 탑비의 자리는 새롭게 조성되는 땅에 비해 낮아져 버렸으니 새 것이 흥하면서 옛것이 초라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탑비의 서체는 아주 단아합니다. 진공 대사가 입적하자 고려 태조가 아쉬움을 견디지 못해 어명으로 보법탑과 탑비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비문은 고운 최치원의 사촌동생인 최언위가 지었습니다. 진공 대사는 신라의 왕계를 타고 났으나 일찍 출가해 가야산에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탑비의 몸체는 망실된 부분을 다른 돌로 끼워 맞추었고 그 이음새가 부박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탑비의 글자들은 마모가 심해 판독이 어려운데 <한국금석전론> 등의 사료에 그 내용이 전하고 있습

니다. 지난해에는 풍기에 위치한 동양대학 박물관이 비로사 인근 계곡에서 진공 대사의 탑비 조각을 발견했는데 182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몸체에 서 이탈해 구석진 곳에 버려졌던 탑비의 조각이 제 몸을 찾아갈 날이 올지 궁금합니다.

비로사는 방치된 역사를 새롭게 고증하고 읽고 해석해 새로운 옷으로 단장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법탑비 앞에 도열된 수북한 석재 부재들이 그러한 비로사의 현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광전 앞의 탑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토막은 부도의 탑신이나 중대석 쪽으로 보이고 어느 토막은 탑신이기 하지만 조화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있는 대로 쌓아 올린 탑은 그 부자연스러움으로 인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사가 새로운 역사를 갈구하는 시절인연을 만들어 가는 동안 그 탑은 탑대로 한 시대의 역사를 갈무리할 것입니다.

절의 오른쪽 후미에서 아쉬움의 극치를 만납니다. 멀리서 보면 그럴듯한 팔각원당형의 부도가 대오당 스님의 부도탑과 비석을 앞세우고 서 있습니다. 제법 솜씨를 낸 탑의 모양이어서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는데 양식은 팔각당을 따랐지만 조각은 오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명문도 없는 이 부도탑이 바로 진공 대사보법탑의 모조품입니다. 50여 년 전에 진짜 보법탑을 잃어 버렸는데 그때 모조품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 마당의 탑을 훑쳐가면서 모조품을 세우는 도둑이 있다면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보법탑은 어느 재벌의 정원이거나 실력자의 후원에 장식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절 안의 탑은 도토리 주워 가듯 훑쳐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모조품까지 세운 도둑질이 어떤 의미인지는 삼척풍자도 알 것입니다.

비로사는 이제 새로운 시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지 성공 스님이 차근차근 이뤄가는 불사는 잃어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역사를 새로운 시대의 시간과 역사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 불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진공 대사의 유계를 실천하는 청정한 마음입니다. 승과 속을 막론하고 수행에만 전념하고, 평범을 귀하게 여기고, 옳은 일만 행하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알뜰한 수행의 시대가 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더 많은 상실과 더 많은 도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비로사, 오늘도 탑을 잃어버린 비석은 온 몸의 상처를 그대로 드러낸 채 마당가에 서 있습니다. 꽃피면 봄이 온 줄 알고 잎이 무성하면 여름인 줄 알고 잎 지면 가을이고 눈 내리면 겨울인 줄 알면서 침묵의 설법을 합니다.

만물은 제자리를 지키고 그 귀함을 드러냅니다. 비로사의 여러 석물들이 하루 속히 제자리를 찾아 그 찬연한 역사적 가치를 드러내길 기원합니다. 잃어버린 보법탑이 돌아온다면 더 큰 경사가 없겠지만, 모조품으로 자리를 채운 후안무치가 더 무섭습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숨겨왔던 많은 이야기들

박상준 스님 지음

삼중스님 강연회에 참석하셨던 유엔불자 3,000분께는 출간기념으로 큰스님의 **영험한 소지용 휘필부적**을 드립니다.  
 신청접수 080-712-0002 (선착순 3,000명)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일생을 바치며, 평생동안, 사랑의 나눔을 강조해 온 삼중스님!  
 많은 사형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남들이 꺼리는 곳은 일을 온 몸으로 실천해 온 삼중스님의 이타행은 많은 불교인들의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노인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나를 찾아오는 것까지가 그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운명에 맡겨버렸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남은 돈으로 수박이나 사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정도였던 셈이다.  
 삶은 그러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노인 역시 그런 삶의 실상을 탓하지도 않았다.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알다시피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도 때가 되면 죽는다.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여유 있는 죽음을 맞는 사람도 다를 바가 없다. 어차피 죽으면 육체는 비슷한 과정을 밟기 마련이다. 거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다 부질없는 일이다.  
 그러나 노인은 말년의 마음 씀씀이로 박복한 삶의 빛을 다 갖고 떠난 것이다..... [본문 중에서]



삼중스님께서 처음으로 들려주는 진실한 삶, 인생이야기와 구도자의 이야기들을 적은 **자전예시**

도서출판 國美카르마 051)583-9923

숨겨왔던 많은 이야기들 | 삼중스님 저 | 335쪽 12,000원 | 이 책의 수익금은 노인복지시설 후원금으로 쓰여집니다.  
 구입신청 (삼중스님 복지재단 건립회) : 080-712-0002 | 우체국 : 601161-01-006913 (예금주 : 삼중원)